

뉴스 추적 / 유지재단, 파행운영 일파만파!

유지재단, 교회재산 명의신탁 악용

법원판결 무시하고 중징계 협박에 시달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합의부)는 지난 8월 16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북부교회 동명교회(김홍정 목사)가 교단의 유지재단(이사장 박명철 목사)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판결문에서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은 동명교회에게 금19억1,009만4천원과 2017년 10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그리고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 가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유지재단은 지난 8월 31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동명교회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진솔)은 교단과 관련된 거래은행(주거래은행은 제외)통장을 압류 하므로 교단의 유지재단명의 예금출금이 전면 정지된 상태이다. 이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동명교회가 교회 토지와 건물을 교단 헌법에 의거 1971년 1월과 1976년 8월경에 교단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등기를 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교회 주변이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교인들 대부분이 떠나서 목회가 어려워져 동명교회의 직원회와 사무총회는 교회 건물과 토지를 건축임대(동성건설)에 매매하기로 결의하고 교단 유지재단에 청원했다. 기성 유지재단은 2017년 6월 13일 이사회 결의로 매매 승인을 해 주었고, 매매가 성립되어 2017년 7월 18일 매매대금 22억 원이 교단 유지재단 계좌에 입금됐다. 이에 따라 동명교회는 임시예금 처소와 담임목사 주택을 포함한 전세금 18억

원어 임대계약을 하고, 계약금 2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동명교회 명의로 작성했으며, 기성 유지재단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건물주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까지 받아 임대계약을 완료했다. 동명교회는 임대한 건물에 입주일이 되어 이삿집센터 차량에 이삿집을 올리고 입주하려는데 유지재단실무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차인 명의로 동명교회에서 기성 유지재단 명의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임대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겠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동명교회는 이삿집을 길거리에 내리놓을 처지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확정일자까지 받은 계약서를 해지하고 유지재단 명의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갱신해주고서야 보증금 잔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이삿집을 풀게 됐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유지재단이 지교회 재산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유지재단 실무자가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서 실무자와 총무차원의 계약서변경을 명명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제보 받은 동명교회 측은 기성 유지재단 실무자가 금품필요의 뜻을 전해 왔고 자녀 학자금 등 얘기했으나 금액이 적어 거절당한 것 같으며, 당연직 이사에게도 인사했다고 연락이 와서 본부 사무실로 찾아가서 인사했지만 금액이 부족해서 이사 당일 돌려받았다는 것이며 동명교회 관계자는 이사 후 1개월 동안 정상화하려고 수차례에 걸쳐 노력했지만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어쩔 수 없이 2017년 9월 28일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원의 1심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후 기성 유지재단의 일부 인사들이 동명교회 담임목사에 대해서 험한 말과 함께 파직 출교와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어 견디기가 힘들다고 한다. 지교회의 상회비로 먹고 사는 총회본부 직원임에도 용서 받지 못할 비행을 저지르고 있어 교단 유지재단에 재산 명의신탁을 한 교회 간의 심각한 문제가 동명교회 이외에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맘으로 기회가 되면 양심선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총회장(신상범 목사)은 지시공문(2017년12월27일자)을 서울북부지교회 회장에게 발송하여 "동명교회에 대하여 행정을 보류하라"고 하였다. 이는 교단헌법과 유권해석을 위반한 불법공문으로써 가치가 없게 됐고 "교회 행정보류는 불법"이라는 것을 서울북부지교회가 지적했다. 기성교단의 유지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는 수년전에 세금환급금 사건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처리되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열화하고 있다. 교단은 결국 법원판결에 의해 동명교회 매매대금은 물론 2017년 10월 13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15%의 지연배상금과 법적비용까지 지급해야만 본 사건이 매듭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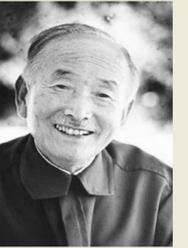
특별기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4>

짓과 꿀 흐르는 가나안농군학교 세운 김용기 장로 (1909~1988)



김용기 목사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 관장
본지 객원 논설위원

김용기 장로는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 마을에서 한평생 농민운동을 한 선각자이다. 그가 항일운동을 하다가 양주경찰서에 끌려가 일주일간 모진 고문을 당했다. 물 먹이기와 공중매달기, 손톱 밀찌르기, 손가락 사이 막대 끼워 비틀기 등을 당한 후 성경적인 농민운동으로 극일(克己)하며, 굶주리고 희망 잃은 국민들에게 신앙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운동(movement)을 선택하였다. 1962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이후,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훈련시켰다. 필자가 1973년 딸기 철에 CCC 형제들과 소설가 임옥인 권사님과 김용기 장로님을 찾아 본 적이 있다. 그때도 장



김용기 장로

게 살자' 하는 생활현장을 만드셨다. ①음식 한 끼에 반디 4시간씩 일하고 먹자 ②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 ③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도록 하자 ④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쓸 줄 아는 국민이 되자 ⑤물질의 빛이나 마음의 빛을 지지 말자 ⑥우리 국민의 뛰어난 재능과 재주와 재능을 다 발휘하라 ⑦외모만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라 ⑧시대적인 외세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우리 국민의 시대적인 감각을 바로 살

리자 ⑨극토 통일보다 먼저 가정과 단체 통일을 빨리 하자 ⑩반공 승공의 길보다 빈공을 먼저 막아야 한다 ⑪나라고 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먼저 하는 국민이 되자 ⑫육체의 잠이 깊이 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게 되고 민족사상의 잠이 깊어 들면 영토와 주권을 도적맞게 되고 민족의 잠이 깊어 들면 영혼이 멸망케 되니 늘 깨어 살자 ⑬장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로 삼자. 김용기 장로는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1975년부터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두 번, 네 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구국 기도실 좌우 기둥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겨레여 안심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현재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에서 이어지고 있고, 세계 여러 국가의 인재들이 와서 영혼(靈魂)을 훈련받는 세계사에 자랑스러운 기관이 되어 있다.

한국 근대화의 상징, 새마을운동 원조

로님은 쪼렷쪼렷한 음성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도전하며 뜨겁게 만들었다. 장로님의 정신(mind)은 1960~70년대 '조국 근대화'라는 박정희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져 '가나안농군학교'라는 고유명사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근대화의 상징적 언어가 됐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농군학교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점심시간 박 대통령은 별 생각 없이 빵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뱉었다. 그 순간 김 장로는 박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요청했다. "각하는 3000만 백성의 아버지이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먹기 전에 식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즉시 빵 조각을 내려 놓고 김 장로의 기도 후 식사를 하였다. 김용기 장로는 '우리 겨레는 이때 이렇



이 기도실에서 매일 4시간씩 기도했다



1962년 박정희 의정은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신임회장 김대규 장로 취임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9월 28일, 총회회관에서 제38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갖고 신임회장 김대규 장로(경기중부노회, 베들레헴교회)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증경회장 이재전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제2부 예배는 증경회장 김기주 장로의 기도, 서기 전병하 장로의 성경봉독, C.C.M 가수 김문기 장로의 특송, 베들레헴교회 최광영 목사의 설교,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와 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의 격려사, 증경부총회장 최수용 장로와 기독교신문사 사장 이순우 장로의 축사, 명예회장 김상윤 장로의 이임인사, 신임회장 김대규 장로의 취임인사, 남전련 총무 김재열 장로의 광고, 경기중부노회장 김형훈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서광호·양유라 기자

기독교문화대상 추천 받는다

기독교 주제의식과 일반적 공감 받는 작품

기독교문화예술원(이사장 소강석목사)이 주관하고 기독교문화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안준배 목사)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목사)가 주최하는 제32회 기독교문화대상이 후보추천을 받는다. 기독교문화대상은 한 해 동안 기독교문화를 발전시킨 문화 예술인을 시상하여, 기독교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킨 기독교문화예술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로 32회를 맞는다. 그 동안 성경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좋은 기독교 작품들이 이 상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도 좋은 작가들의 작품이 추천

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독교문화대상은 음악(오페라 국악 연극(뮤지컬) 문학 방송 무용(대중음악)의 7개 부분을 시상하게 된다. 전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발표된 작품들 중에서 저변에 기독교적 주제의식과 메시지가 담겨있고 일반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 대상으로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0월 22일(월)까지 추천 접수된 후보에 한해 심사하여 확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 메달 및 상장이 수여된다. 문의: 기독교문화예술원 (02-474-7801) 양유라 기자

☞ (주)기독교헤럴드 창사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말씀살공동체 성락성결교회

한가을 말씀사경회

2018. 10.7(주일)~10(수)
성락성결교회 3층 대예배실

10.7(주일) 1,2,3부	10.7(주일) 오후3시	10.8(월) 저녁7시30분	10.9(화) 저녁7시30분	10.10(수) 저녁7시30분
‘은혜,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8장 13~22절	‘교회의 사명’ 사도행전 13장 1~3절	‘기념하라’ 마태복음 26장 6~13절	‘범사의 복’ 신명기 24장 19~22절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 빌립보서 4장 1~7절
 강사 지형은 목사 - 말씀살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 남북나눔 이사장 - 한국 IFCJ 이사장 - '보시니참중있더라' 발행편집인 - 독일 보훔대학교 신학박사	 강사 흥정길 목사 - 말말복지재단 이사장 - 남북나눔 전 이사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 송실대. 합동신대원 명예박사	 강사 남수는 목사 - 제주제일교회 담임목사 - 필리핀 국제성결대학교 이사장 - 제주시 기독교 연합회장 - G12 Korea 본부장 - DREW대학교 목회학박사	 강사 김시영 목사 - 원호교회 담임목사 - 대한기독교서회 이사 - 서울신학대학교 이사 역임 - 경북지방회장 역임 - 서울신대. 계명대 호서대 대학원	 강사 이정익 목사 -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역임 - CBS,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역임 - 성결교단 100주년 총회장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길 33, 02-467-8105 sungnak.org